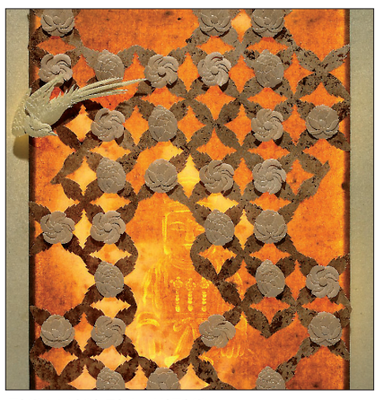
불일미술관, 봉축 기획전 '이 시대의 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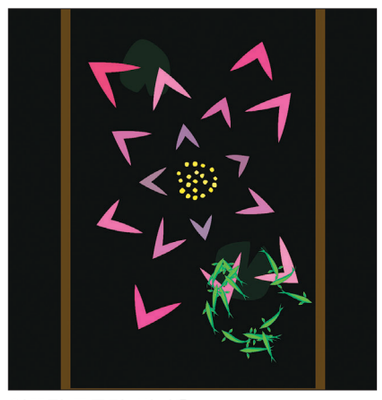
'현대의 佛母' 6인


삼매, 전상용.


四天王圖-南方護世 增長天王, 권지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해기.


관음보살의 미소, 박명옥.


연꽃과 물고기, 박진홍.

붓다의 생모 마야(摩耶) 부인 혹은 붓다의 모체가 되는 완전한 지혜를 뜻하는 불모(佛母). 근대에 접어들며 불화나 불상을 만드는 장인을 일컫는 말로 전래되며, 불모란 타이틀은 불교미술계에서 하나의 영예로 여겨졌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불모란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 어원이 뚜렷하지 않아 정체성이 모호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불일미술관은 시대에 맞는 불모의 가치를 재창출해 현대 불교미술계를 이끌어갈 불모 6인을 소개한다. 바로 전상용(조각), 권지은(불화), 이해기(회화), 박명옥(공예), 노재학(사진), 박진홍(미디어) 작가다.

6명의 불모는 법련사 불일미술관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련한 기획전 '이 시대의 불모전-아름다운 결집'을 통해 등장한다. 4월 19~30일 불일미술관 1·2관 전관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시대의 새로운 불모의 가치를 제시해 현대 불교미술의 중흥과 작가 인재불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불모 6인은 불교미술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중견 작가들 중에서 불일미술관이 선정했다. 중진 작가들보단 차세대 불교미술을 이끌어갈 동력이 될 인물들이 꼽혔다. 특히 기존 불모 개념에 포함된 불상·불화 등 작가 외에 현대미술의 주류를 이루는 사진과 미디어 분야를 포함시켰다. 불교계 최초 상설 미술관이자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으로 평가받는

현대시대 맞는 새로운 불모상 제시

현대불교미술 중흥·인재불사 도모

전상용·권지은·이해기 작가 등

사진, 미디어 분야도 폭넓게 포함

4월 19~30일 1·2관 전관서 전시

불일미술관이 엄선해 선정한 만큼 불모 6인의 작품과 그들이 이룰 조화가 벌써부터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상용 작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이수자로,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해 파리 제8대학 조형예술과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번 전시서 전 작가는 '나는 그대로다' 시리즈를 선보인다. 나타라자(Nataraja; 힌두교 대신으로 무용의 명수 '시바'의 별명)에서 기본 형상을 따왔으며, 조각상에 '나는 변함없이 여전하다' '난 곧 당신이다'란 이중적 의미를 내포했다. 힌두교적이면서 동시에 불교적 세계관을 표현한다.

권지은 작가는 동국대 대학원 불교미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전통문화대 전통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3년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올해의 예술가상서 '주목할 예술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선 선명한 색채감과 생동감 넘치는 표정 묘사가 돋보이는 사천왕도를 선보인다.

이해기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해 봉은사 등 11개 사찰서 순회 전시할 만큼 불교미술계에서 잔뼈가 굵다. 이번 전시에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마야탁몽'을 비롯해 다수의 금화(金畵)를 선보이는 이 작가는 다년간 금화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박명옥 작가는 명화 페이퍼아트 대표로, 2007년 불교미술대전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종이로 보살상을 만드는 박 작가의 작품은 원만한 상호(相好)와 특유의 멋스러움이 돋보인다. 특히 LED조명과 문살 등을 사용하며 작품마다 다변화를 줬다. 이번 전시에선 '관음보살의 미소' '극락의 부처님을 만난 날' '수월관음'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노재학 작가는 불교 사진작가로 전국의 전통사찰을 다니며 불교문화유산의 세월의 미와 정교함을 고스란히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선 양산 신흥사 대광전의 '도솔래의상' 벽화 부분을 찍은 '부처님, 꿈길로 오시다' 등 작품을 내놓는다.

박진홍 작가는 2016년 가진화랑서 개인전 '무시무종'을 여는 등 활동을 펼쳤으나 불교계에선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터치모니터를 통해 간결한 단색과 절제된 영상미를 표현한 '연꽃과 물고기' 등 작품에 불교적 세계관을 드러내며, 故 백남준 작가 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불교미디어아트계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불일미술관은 개관 21주년 기념 '조범제 초대전'을 4월 5~18일, 또한 부명 스님 개인전 '등불(體)&염원(用), 내 염원의 등불 展'을 4월 6~16일 각각 개최한다. 박아름 기자

봄꽃도 보고 문화재도 보고 '일석이조 봄나들이'

국립중앙박물관 4~5월 봄맞이 '봄길 따라 시간여행'

국립경주박물관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 '교과서 속 문화재'

봄꽃도 보고 문화재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일석이조 봄나들이를 떠나보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따사로운 봄을 맞이해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야외전시 해설 프로그램 '봄길 따라 시간여행'을 4~5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2~4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봄꽃이 활짝 핀 박물관 정원을 거닐며 문화재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동기 시대 산청 매촌리 고인돌, 통일신라시대 흥법사지 염거화상탑(국보 제104호), 고려시대 정토사지 홍법국사 실상탑(국보 제102호), 조선시대 옛 보신각 동종(보물 제2호) 등 중요 문화재 10여점을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야외전시 해설과 함께 작은 음악회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거울못 앞 청자정에서 진행되는 작은 음악회 일정은 △4월 15일 소프라노 김순화·이성경의 오페라 △4월 29일 가야금 산조 하경미 △5월 13일 오페라 어린이 합창단 △5월 27일 판소리 강경아 총 4회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는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서 가능하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매주 수요일 저녁 오후 6시와 7시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박물관 큐레이터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4월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테마전 '고성 옥천사 괘불' 전시설명회가 진행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2077-9000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초등학생 단체 교육 프로그램 '교과서 속 문화재'를 진행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재를 주제로 진행되는 '교과서 속 문화재'는 올해 '박물관이 들려주는 황룡사 이야기'를 다룬다. 삼국의 사찰과 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신라의 대표 호국사찰인 황룡사와 황룡사 터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4월 3일~6월 30일 매주 월~금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 단체(30~200명)는 운영 기간 중 원하는 시간 1시간을 선택해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gyeongju.museum.go.kr) '교육 및 행사' 카테고리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 무료.

한편 국립경주박물관은 11월 29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재 돋보기'를 진행한다. 이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박물관 야간 개장에 맞춰 오후 5시 30분~6시 30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전시 담당자의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신라 문화재를 더욱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세부 일정 및 주제는 △4월 백제기와와 신라기와 △5월 금속 문화재 이야기 △6월 월지 △7월 경주지역의 선사토기 △8월 신라의 석탑과 석탑부재 △9월 백률사 약사여래입상 △10월 구석기~청동기 석기의 종류와 용도 △11월 특별전 '월성'이다.

신청은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서 가능하며, 프로그램 당일 지정 시간에 해당 전시관 입구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054)740-7591~2 박아름 기자

'뮤직·드라마·깨달음'으로 배우는 십우도

기원정사 자명 스님, 부산·서울 등 전국 공연

영덕 기원정사 자명 스님이 십우도(十牛圖)의 가르침을 '뮤드깨'란 새 장르로 선보여 눈길을 끈다.

자명 스님은 2017 문화포교 프로젝트 '뮤드깨-한 웅큼의 빛'을 부산과 영덕, 창원, 서울, 울산 등 전국서 개최한다. '뮤드깨'란 뮤직(music), 드라마(Drama), 깨달음이 결합된 장르다. 자명 스님은 소를 찾아 떠난 목동이 마침내 '나'를 찾는 과정을 불교에서 견성에 이르는 10단계 과정으로 묘사한 '십우도' 가르침을 뮤드깨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이번 공연은 2011년 한국희곡상을 수상한 정경환 씨가 대본 및 연출을 맡았다.

공연 일정은 △부산 한결아트홀 4월 16~17일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 4월 19일 △창원 3.15아트센터 5월 19일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6월 11일 △울산문화예술회관 6월 18일이다.



뮤드깨 '한 웅큼의 빛' 공식 포스터.

자명 스님은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 유전자는 불교문화"라면서 "불교의 고유문화로써 폭넓은 계층에게 다가가 공감하며, 특히 불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성황리에 회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붓다아트페스티벌은 불교로부터 전승되어온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장입니다.

2006년 어려운 환경속에서 '불교박람회'란 이름으로 첫 씨앗을 뿌린 인연을 이어 2013년부터 우리 종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 전통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노력으로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년 연속 유망전시회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시규모와 관람인원의 성장과 더불어 향상된 전시품격으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전통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종합박람회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경연과 문화 축제의 장을 만들고 한국의 전통문화콘텐츠가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불교박람회가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참가업체와 작가, 그리고 박람회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 대회장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

2017 서울국제 불교박람회

일상이 빛나는 순간, 수행

주관 불교신문 불광미디어 BulkwangMedia